

유불선 합일의 구원선을 타고 '큰 내'를 건너 죽음 없는 신선세계로 들어가자!

이설대천목도내행(利涉大川木道乃行)은 “큰 내를 건너니 이로우니라. 목도(木道)가 이에 행함이라.”라는 의미로써 주역 64괘중 42번째인 풍뢰익(風雷益)괘에 나오며 격암유록 송가전(松家田)에도 언급되어 있다. 풍(風)은 손(巽=風鶴,長女)괘, 뢰(雷)는 진(震=雷龍,長男)괘를 말하며 소위 격암유록의 손진계통과 관련되어 있다. 격암유록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앞부분의 이설대천(利涉大川)에서 ‘큰 내(大川)’는 차안(此岸) 즉 죽음이 있는 세상과 피안(彼岸) 즉 죽음이 없는 세상 사이에 있는 큰 강으로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가자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을 말한다. 따라서 ‘이롭다’함은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뒷부분의 목도내행(木道乃行)은 그 ‘큰 내’를 목도(木道)로써 건너간다는 뜻이다. 세상 사람이 혼자 힘으로 ‘큰 내’를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목(木)의 도(道) 즉 유불선 합일의 도로써 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럼 목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목(木)은 동방갑을삼팔(東方甲乙三八) 목이다. 청(靑)색이요 봄(春)이요 오상(五常=인의예지신)으로는 인(仁)을 배속한다.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주인공 정도령, 시기(時期), 장소, 천지개벽의 이치 등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다.

정도령은 중천시대에 나온다

격암유록은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여 지상선국(地上仙國)을 건설하는데 계룡은 ‘산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지상선국은 신선의 나라를 말하며 신선은 불로불사의 존재이니 결국 정도령이 목(木)의 도(道)로써 천지개벽을 하여 죽음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말이다.

육도삼락운행지도로 볼 때 선천(1략)은 복희(1도 36궁) 문왕(2도 45궁)이 소남 소녀로서 담당하였고 후천(2략)은 수운(3도 54궁) 최수운(4도 63궁 강증산)이 중남중녀로서 담당하였으며 선후천은 쇠병사장(衰病死葬)을 면할 수가 없었다. 중천(3략)은 목운(5도 72궁) 금운(6도 81궁)이 장남장녀로서 담당하여 쇠병사장을 없애고 지상에 신선의 나라를 만들고 장춘(長春) 세계를 여는 것이다.

따라서 정도령은 중천에 나오는 게 되는 것이다. 격암유록에서 정도령이 나오는 이치를 살펴보면 첫 출발은 목운(5도 72궁)인데 하락영인으로 오며 양백론에서 하락영인(河洛靈人=양백성인=십승인=십인=목장군 등)이 생자녀(生子女) 양육(養育)한다고 한다. 무용출세지장(無用出世智將)에서는 ‘십인생산 일남일녀(十人生產一男一女)’라는 구절도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한 것뿐이다. 하락성인 또는 하락영인이라 함은 하도(海道)의 중심 백오점(白五点)과 나서(소백)의 중심 백오점이 합하면 ‘백십(白十)’이 되어 이른바 십승(十勝)이 된다. ‘백십’을 말하려고 궁궁(弓弓=雙弓=兩弓)을 이용하는데 궁궁이 등을 지면(背弓) 배궁(背弓)하면 백 십(百)이 나오기 때문이다. 을들도 마찬가지로 ‘백십’(白十)을 만들 수 있다. 궁궁을(弓弓乙乙) 줄이면 궁을이다. 그래서 궁을 정도령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락령인은 십승 하나님(天神)이 일(日)한 목운(3리의 5도 72궁)이며 곧 전도관의 박태선(朴泰善)이라 고도부신인(桃符神人)에서 말하고 있다.



“도사공(都沙工)이 십승(十勝)일세 억조창생(億兆蒼生) 건지려고 심승방주(十勝枋舟) 예비(豫備) 하여 만경창파풍랑(萬傾蒼波風浪) 속에 구원선(救援船)을 띄었으니 의심(疑心) 말고 속히 터소”
- 격암유록 「궁을도가」

人生産 一男一女’라는 구절도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한 것뿐이다. 하락성인 또는 하락영인이라 함은 하도(海道)의 중심 백오점(白五点)과 나서(소백)의 중심 백오점이 합하면 ‘백십(白十)’이 되어 이른바 십승(十勝)이 된다. ‘백십’을 말하려고 궁궁(弓弓=雙弓=兩弓)을 이용하는데 궁궁이 등을 지면(背弓) 배궁(背弓)하면 백 십(百)이 나오기 때문이다. 을들도 마찬가지로 ‘백십’(白十)을 만들 수 있다. 궁궁을(弓弓乙乙) 줄이면 궁을이다. 그래서 궁을 정도령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락령인은 십승 하나님(天神)이 일(日)한 목운(3리의 5도 72궁)이며 곧 전도관의 박태선(朴泰善)이라 고도부신인(桃符神人)에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마귀의 1차 전쟁에서 하나님 이 지고 마귀가 이겼다(天神負而地鬼勝)

십승 하나님 혼자서는 잃어버린 애덴동산(천국)을 회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애덴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살고 있었는데 애덴동산(천국)에는 세상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하나가 되어 일체를 이루어서 삼신일체 삼위일체로 존재하였던 것이며 선악과 사건 때문에 즉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天神)이 지고 마귀(地鬼)가 이겼기 때문에(天神負而地鬼勝; 격암유록 「도부신인」편)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전락되어 남자 여자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서 세 분이 일체를 이루어야 마귀를 이기신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天神)이 되어 애덴동산(천국)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운(朴泰善)은 신도가 150만 정도였다고 알려졌지만, 신도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잊어버렸던 아담 해와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목도를 가지고 와서 목운(5도 72궁)에 임한 십승 하나님은 체(體)가 되고 일남일

녀는 용(用)이 된다. 금운(6도 81궁)은 일남으로서 용(用)이 되며 동시에 체용을 겸하게 된다.

왜냐하면 금운 속에 목운과 여인 한 분과 금운이 삼합이 되어 이른바 삼신일체 삼위일체 하나님(天神)이 좌정하여 체용(體用)을 겸하게 됨으로써 인류가 그토록 고대 하던 정도령(구세주=미륵불=15진주)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은비가(隱秘歌)에서는 ‘삼진신중일인출(三真神中一人出)’이라고 표현하였다. 목운 다음에 오는 ‘여인 한 분’은 여인이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금운 정도령을 만나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있다. 그래서 보통 목운과 금운 두 사람을 말한다.

구원선의 도사공은 정도령이다

도부신인에는 목운은 정도인(鄭道仁), 금운은 정홍도(鄭紅桃)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청령도사를 정각가에는 구토

상합진인(鳴鬼相合眞人)이라고도 하였다. 성경에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계시록 12장)라고 한 바 ‘해’는 십승 하나님(天神)을 의미하고 해를 입은 여인은 바로 목운(百姓=民衆)을 말하며 목운이 낳은 아들이 금운(6도 81궁 정도령)이 되어 갑로해인을 용사(用事)하여 마귀를 죽여서 지상천국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라는 말씀대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됨은 갑로해인으로서 지상천국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박태선, 박정희, 모 교단의 박 누구라고 하면서 대야난 해와 성이 같은 박씨를 그 근거로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십승 하나님(天神)이 박씨 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일남일녀를 생산한다면 그 일남일녀가 박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영적인 말이라 세상 박씨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삼인동행칠십리(三人同行七十里)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삼인동행칠십리는 삼인동행칠십리(三人同行七十二)를 말한다. 동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칠십리(七十里)로 말한 것뿐이다. 동행은 같은 길을 간다

이와 같이 감주어진 큰 그림을 모를다면 결코 격암유록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소위 청령도사(青林道士=쌍목=양목)는 목운, 여인한분, 금운이 합해진 삼위일체 하나님(天神)이 좌정한 분이라는 말로서 금운 정도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십승 하나님(天神)이 목도를 가지고 목운에 임한 후에 넓은 금운이므로 금운은 목도를 가지고 천지공사를 행하는 것이다. 이는 갑을가의 삼처박수(三處朴誰可知)라는 말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서 세 분이 일체를 이루어야 마귀를

이기신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天神)이

되어 애덴동산(천국)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운(朴泰善)은 신도가

150만 정도였다고 알려졌지만, 신도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잊어버렸던

아담 해와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목도를 가지고 와서 목운(5도 72궁)에

임한 십승 하나님은 체(體)가 되고 일남일

녀는 용(用)이 된다.

그리고 목운은

정도령(구세주=미륵불=15진주)

로 표현된다.

그리고 목운은

정도령(구세주=미륵불=15진주)

로 표현된다.